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함을 즐겨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8월 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13호 2016년 9월 7일 수요일

차례·신행 동시에… '사찰차례'가 대세

2016 추석특집
cover story

주부 강 모(50, 서울 대치동) 씨는 올해 추석 차례를 인근 사찰에서 지내기로 했다. 딸만 있는 집안이라 지난해만 해도 딸의 도움으로 차례 음식 준비가 수월했지만 올해 딸을 시집보낸 뒤 혼자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 씨는 "차례 때 친척들이 그다지 많이 오지 않는 데다 남들처럼 며느리와 함께 준비할 수도 없어서 결국 신위만 모셔서 가까운 절에 가서 차례를 지내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명절 문화

최근 명절 풍속도는 불과 10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10년간 추석 나기는 짧고, 가깝고, 실속 있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귀성객들의 고향 체류 기간은 2004년 '3박4일 이상'이 40.3%에서 2014년 25.5%로 14.8%나 줄었으며, 1박 2일은 25.1%에서 32.2%로 7.1% 늘었다. 추석 연휴 기간 내 수도권 안에서 움직인 가구의 비율도 18.3%에서 23.2%로 4.9% 증가했다. 수도권 거주자 중 4명중 1명은 추석에 고향을 가지 않게 된 것이다.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불교민속학회장)는 "과거 대가족 중심의 농업사회에서는 가족이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개인이 주체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가족 또는 명절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차례는 지내야

하지만 아직까지 차례를 지내야 한다는 보수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사찰 차례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다. 수도권 각 사찰들은 늘어난 인파로 분주하다.

서울 조계사의 경우 추석 합동차례 동참 가정이 2013년 846가구에서 2014년 905가구, 2015년 955가구로 증가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900여 가구가 신청한 상태다. 매년 7%씩 증가하고 있다. 조계사는 2013년부터 3부제를 지내고 있다.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10여년 전만 해도 명절에 합동차례를 모시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사찰 종무원이 다수가 나와야 할 정도로 중요 행사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봉은사는 2013년 1055가구에서 2014년 1145가구, 2015년 1172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봉은사 관계자는 "예년보다 더 접수된 상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120가구에 한해 진행되는 단독차례의 경우 지난해 10여일간 모집됐다면, 올해는 이미 공고 이틀만에 모집 마감됐다"고 전했다.

대구 동화사의 경우 이번 추석에 50여건 이상의 합동차례 접수를 받았다. 추석 당일 사시예불 후 차례상을 준비해 가족들이 가져온 위패를 모시고 차례를 지낸다. 차례 지내기가 어려운 신도들은 종무실을 통하거나 전화를 통해 합동차례에 참가한다. 10만원 정도의 접수비용만 주면 절에서 차례를 지낼 수 있다.

단순 차례 대행은 '본말전도'

사찰차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순히 시민들의 편의성 증대에만 사찰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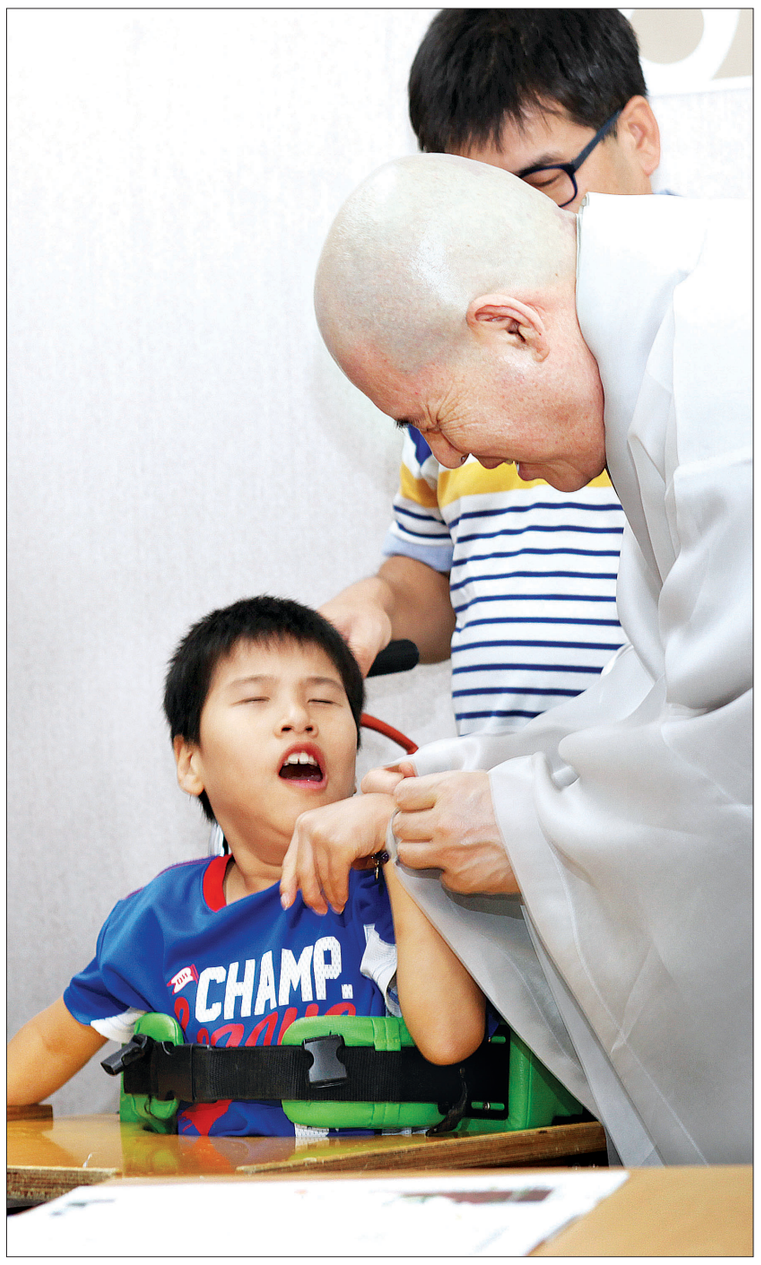
불교민속학자인 구미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사찰이 단순히 차례 편의 증대에만 그친 대행업에 머무

명절 미귀향 가구 25% 달해
사찰차례 동참자 연 7% 증가
수도권 사찰차례, 2부제 운영
"불교계 세시풍속 개발 필요"

른다면 차례문화 쇠퇴와 함께 곧 외면받고 말것"이라며 "다문화가족 이산가족,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돕거나 통일발원기도 등 민족 명절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기도 등도 함께 진행해 본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가 음력문화를 보존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용덕 한양대 교수(비교민속학회장)도 "설 단오 추석 등의 명절은 유교와 불교, 농경문화 등 우리의 전통이 섞인 문화다. 하지만 농경문화 · 유교문화가 사라져가며 이제 불교문화만이 보루로 남게 됐다"며 "최근 사찰에서 칠석, 동지 등에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일반에서 이미 잊혀져 버린 세시풍속을 유지해 가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추석 차례 또한 외부에서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을 불교계가 연구 개발해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런 노력이 사찰로 국민들을 끌어들이는 이벤트가 되고 포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우리 다 나을 때까지 파이팅 하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8월 30일 자비나눔행 펼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자비나눔 행이 펼쳐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30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1억 3800만원의 자비나눔 성금을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전달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최승현(15) 군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다. 최 군은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뇌병변 1급 장애로 인해 복지관에서 물리치료와 작업, 언어치료 등을 받고 있다. 자승 스님은 최 군의 부모와 재활치료를 맡고 있는 물리치료사에게도 "고생이 많다"며 복주머니와 단주를 선물했다.

전달된 기금은 지난 4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진행한 '제16회 난치병어린이지원 3000배' 정진에서 모연된 것으로 난치병 환아 15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2016 추석특집 12 · 13 · 14 · 15면
조계종 교육원 중국 선종사찰 순례 현장 21면

도난됐던 '송광사 오불도' 내년 다시 한국으로 온다

조계종 · 문화재청 · 포틀랜드博, 송광사 반환 협의



미국 포틀랜드박물관에 기탁 중인 송광사 오불도. 내년 상반기에 송광사로 돌아온다.

도난됐던 송광사의 오불도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종단과 문화재청의 공조 끝에 이뤄진 성과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문화재청(청장 나선화), 미국 포틀랜드박물관(관장 페리소)은 "로버트 마티엘리(Robert Mattielli · 86) 씨가 포틀랜드박물관에 기탁한 '오불도'가 원소장처인 송광사로 돌아가는데 동의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이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지난해 3월 미국 경매에 출품된 도난 불화인 '선암사 동악당재인대선사 진영'을 협력을 통해 환수한 이후, 두 번째 성공사례이다.

'오불도'는 '오십삼불도' 중의 하나로 〈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을 근본경전으로 조성한 불화다. 이는 송광사를 비롯한 일부 사찰에만 전해져 희소성이 매우 높다.

이 같이 귀중한 성보인 '오불도'의 반환 합의는 마티엘리 부부의 불화 보

소장자 마티엘리 반한 동의
12월 특별전 · 심포지엄 後
2017년 상반기 중 '환지본처'

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포틀랜드박물관의 적극적인 중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발간 등 조계종의 불교문화재 도난 방지에 대한 노력도 주요했다.

실제, 기탁자인 마티엘리 씨는 1970년 초에 서울 안국동 골동품점에서 목가구를 구경하던 중에 서랍장에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있는 '오불도'를 처음 발견했다. 2주 후, 그가 다시 그 골동품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목가구는 팔렸고, '오불도'만이 구석에 놓여 있었다. 마티엘리 씨는 이를 구입해 보존처리 전문가를 통해 수리했고, 1985년 '오불도'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 보관하다가 2014년에 포틀랜드박물관에 기탁했다.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4년 7월에 포틀랜드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현황을 조사하던 중 기탁된 '오불도'가 도난 불화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협의를 통해 포틀랜드박물관의 중개자로 나섰고, 도난 문화재임을 확인한 마티엘리 부부는 원 소장처인 송광사로 돌아가는 것에 적극 동의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측은 "발견 당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마티엘리 부부의 한국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보존 노력이 아니었으면 '오불도'는 지금까지 남아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오불도' 환수가 한국과 미국 간 상호 이해와 문화교류의 모범사례로써 미국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포틀랜드박물관에서 특별전과 심포지엄을 개최한 후, 2017년 상반기 중에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전은 오는 9월 3일 시작해 12월 4일까지 개최되며, 심포지엄은 12월 3일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가 '한국불교와 송광사'라는 주제로, 마야 스틸러 캔자스 대학 교수가 '오불도와 한국의 불교의식'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또한, 조계종과 송광사는 2017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오불도' 봉안식에 마티엘리 부부와 포틀랜드박물관 관계자를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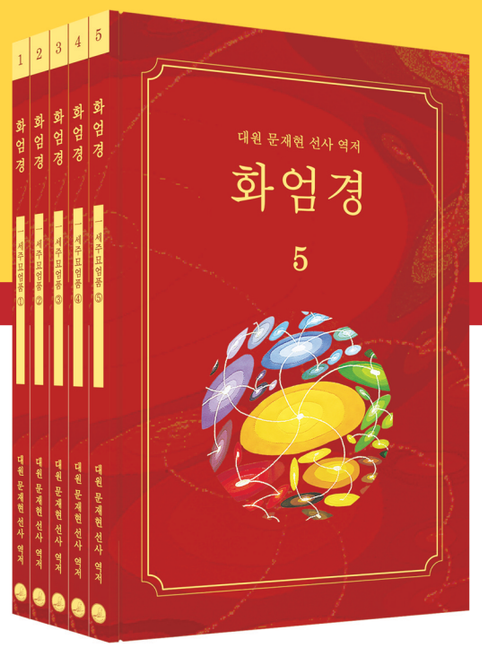
조계종은 "앞으로도 외국에 소재하는 도난 불교문화재를 적극 환수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2017년 상반기까지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증보하고 영문판으로 발간해 미국, 프랑스 등 180여 개국과 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국제기구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즐겁게 보내세요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80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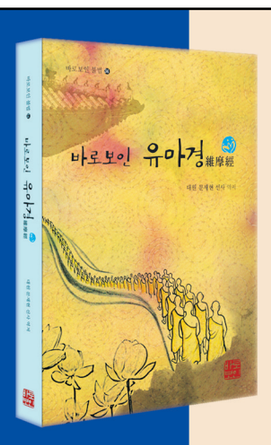
화엄경 81권 중 5권 출간

모연문
출간 불사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니, 불보살님이 교화하는 경지에서의 깨달음의 실경과 신통자재한 방편행을 보여주는 최상승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가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禪의 일상, 禪의 누림!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